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요즘 TV를 보면 경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야 놀자'나 '경제비타민' 등과 같은 경제 TV 프로그램에서는 대개 재무설계 전문가가 나와 가정이나 개인의 재정적 위험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몇년 새 재무설계라는 용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테크가 단지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술적 개념의 용어라면 재무설계는 인생의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의 용어다.

맞춤형 '재테크 노하우' 전수 받아야

금융기관 PB·FP 활용 재무 설계팬
꾸준한 시스템 관리 투자실패도 적어

예를 들어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자.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본인이 여행 스케줄을 결정하고, 숙박시설, 항공편 등 여행에 필요한 고려요소를 모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여행사를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여행 스케줄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각종 부대사항들에 대한 대리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재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즉, 과거에는 자신이 직접 밟아 찾아다니며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기 나름의 분석대로 주식을 매매했지만, 지금은 재무설계사

와의 상담을 통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재무목표 분석과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다. 때로는 구체적인 투자상품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을 대리해서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재무설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니즈(요구)에 맞는 영업망을 확보하기 위해 PB(Private Banker), FP(Financial Planner) 등과 같은 전문 재무상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소속 기관의 자산 수탁고를 늘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무설계라는 껌데기를 쓰고 실제로는 소속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지 창구에 앉아서 고객에게 단편적인 금융지식을 전달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기에 열을 올리는 상담자보다는 전반적인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재무설계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좋은 재무설계사면 먼저 고객지향적 인 윤리성이 맑바탕에 있어야한다. 대출을 미끼로 불필요한 펀드 가입을 강요한다거나, 보장에 대한 부분을 과대포장해 사업비가 높은 보험 가입을 조장하는 영

업사원의 핵심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고객을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윤리성'이 좋은 재무설계사의 첫 번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및 금융지식이 풍부하고, 지속적인 투자 모니터링을 통해 자산관리가 가능한 재무설계사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확정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는 사람은 피하되, 고객을 방치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투자전략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재무설계사를 선택해야 한다.

갈수록 금융환경은 복잡해지고 재테크에 대한 정보가 흥수를 이루는 시대다. 혼자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결정하기보다는 전문 상담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무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엔高… 수출회복 기대감 1,500고지도 등정 기세

■사상 최고가 기록 코스피

코스피지수가 수출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작년 5월 11일 기록한 직전 고점인 1,464.70을 9개월 만에 깨고 올라가 전날보다 14.03포인트(0.97%) 오른 1,465.41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유가증권시장 강세의 영향으로 엘세찌 강세를 이어가며 1개월 만에 610선을 돌파해 610.41로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미국 뉴욕증시의 혼조세에도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엘세찌 강세와 이로인한 수출회복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 도전하는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수 상승 요인으로 글로벌 증시의 동반 강세와 양호한 수급 등을 꼽았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글로벌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풍부한 유동성과 주식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 부각 등으로 올 들어 출발해 동반 강세를 보여왔다.

또 내부적으로는 6자회담 타결로 인한 북핵 긴장 완화, 일본 금리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 기대감, 양호한 수급, 저평가 매력 등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내동생 가방 예쁘죠?

나도 이제는 어엿한 학생.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22일 가족들과 함께 광주시 충장로 한 학용품점을 찾아 가방을 구입, 메보고는 활짝 웃으며 기뻐하고 있다.

/워직령기자 jrwi@kwangju.co.kr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4개사

공정위 "가격담합"... 과징금 526억 부과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기름값 담합으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총 2천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이 총 1조 6천억원이었으며,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을 적용할 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2천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적시한 담합기간 외에도 지난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문구가 나타나는 등 담합 의혹 기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이번 제재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4개사는 2004년 4월께

서로 연락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시 공장도가격과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나눠지는 이원적 가격 결정구조를 이용해 SK가 고시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공장도가격(드럼당)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금액을 각각 시장의 목표가격으로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는 지 여부를 서로 감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가계대출금리 3년만에 최고 수준

1월중 연 6.18%... 전달보다 0.21% 상승

지난달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3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1월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달보다 0.21%포인트 급등한 연 6.18%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1월 연 6.43% 이후 3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27%포인트 급등한 연 6.15%를 나타내 2004년 2월 6.15% 이후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은 한은의 유동성 축소 조치로 양도성 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이 상승한 데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전달보다 0.09%포인트 오른 6.49%를 나타냈다.

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도 은행의 특판예금 취급 등에 따라 전달보다 0.1%포인트 오른 연 4.66%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박세홍씨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박세홍(58·사진) 전 대우건설 사장이 내정됐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행수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후임에 박 전 사장을 임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장은 진철훈(53)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과 함께 최종 경합을 벌였다.

박 전 사장은 197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대표이사까지 지낸 뒤 작년 말 퇴임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유재한씨 내정



유재한(사진) 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차기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유재한 전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낙점했다.

유 내정자는 대구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 20회로 관가에 입문했다. 1991년 재무부를 시작으로 옛 재정경제원 국민저축은행,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올해 9만개 만든다

정부는 올해 재정투입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개를 새로 창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을 포함해 연간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올해 추가로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 인세를 감면해주고 이런 기업에 내는 기여금은 손비로 인정해 줘 기부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시·도지사, 교육감, 일반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를 가졌다.

사회서비스란 가사·간병·보육서비스, 장애인·노인 지원서비스 등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말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일컫는다.

이날 발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재정투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1만개 외에 올해 9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키로 했다.

/연합뉴스

'알박기'에 11만평 뮤여

민간 주택사업자 건설사업 피해 호소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민간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택지가 전국에서 11만8천여평에 이르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는 전국 9개 사업장의 11만7천900여평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성수동1가의 1만2천여평 택지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택지의 95%를 민간사업자가 확보했으나 나머지 5%를 사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의 땅주인들은 매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당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물려 민간사업자와의 매수·매도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민간사업자가 9천400여평 중 85%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15%를 매수하기가 어려워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또 대구시 종구에서는 5천여평 중 98%를 확보했으나 2%가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울산시 남구에서도 5%의 땅을 보유한 주인들과 협상이 안 돼 2만4천500여평의 택지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1만8천700여평 중 5%의 땅을 사지 못해 민간사업자가 몇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지연사실을 잘 밝히지 않으면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학교 경제교육 미흡"

시간 늘리고 프로그램 개발 시급

상의, 교사 150명 설문 중·고교 교사들은 학교 경제교육이 양

과 질 모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중순 애산에서 개최된 '제7차 경제·문화체험' 행사에 참가한 중·고교 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교사의 89.3%가 현행 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당(8.0%)하다거나 충분(2.7%)하다는 의견은 10.7%에 불과해 학교 경제교육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대상교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경제교육 시간을 늘리는 한편 다양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부영 기증 수피아여고 '우정학사' 준공

